

“광주·전남은 고문헌의 보물창고예요”

컬처 & 피플

인문학자 정민 교수



“광주와 전남은 발길이 지러발이고 보물 창고예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고 드러나는 게 있어요. 고문헌과 선비들의 자료가 넘쳐나는 화순분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정민(55)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는 최근 펴낸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글항아리)을 계기로 만남을 청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사업으로 ‘한국학 호남진흥원’을 만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자 나온 대답이다. 뿌리를 찾으려면 선조들의 글과 자료를 읽어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정 교수는 한문이란 코드를 바탕으로 연암 박지원과 다산 등 조선시대 지식인들을 현재로 불러내고 있는 한학자이자 인문학자다. ‘미처야 미친다’ ‘돌 위에 새긴 생각’ ‘한시미학산책’ 등의 저서로 다양한 팬을 확보하고 있는 정민 교수는 전방위적 글을 쓰는 파워라이터다. 한문의 딱딱한 외피에 쌓여있는 조선 지식인들의 삶과 속내, 철학을 독특한 독법으로 읽어낸다. 간단한 서간도 ‘정민식’ 해석이 곁들여지면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맥락이 현재형으로 살아난다.

“백운동 별서정원”은 정 교수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역사의 광맥이다. 별서는 은거를 위해 마련한 제2의 주거지. 백운동은 월출산 자락인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안운마을에 있다. 이 곳의 빼어난 풍광에 반한 다산 선생은 백운동 12경시 연작을 남겼고, 제자 초의에게 백운동도와 다산도를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친필 시를 모아 백운첩을 남겼다. 정 교수는 백운동에서 다산의 글 8편을 발굴했고 한국 최초의 차 전문 저자인 동다기(東茶記)도 찾아냈다.

“몇 년전 인터넷 기사를 보고 다산 관련

연암·다산 등 조선의 지식인들 현재로 불러내 우리의 삶 반추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의 가치 새롭게 조명하기도

글을 찾아 광주에 갔었지요. 주인장이 ‘소장자가 공개된 후 책을 보자는 사람이 1년 만에 당신이 처음’이라더군요. 옛 자료가 문헌이 한국전쟁 때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고 하죠. 천만에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해요. 엄청난 양의 자료가 있음에도 우리가 갈무리하지 못하고, 연관 짓지 못한 것 뿐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정 교수는 고향보다 광주·전남지역을 더 자주 찾는다. 전라도에서 발품을 팔아 발굴한 다산의 서간 등 자료만도 100여점을 헤아린다. 무등산에 관한 옛 사람들의 글과 시를 연구하기도 했다. 소설가 이정준 선생 묘소의 비문을 썼고, 기봉 백광홍(1522~1556) 선생 문집도 번역했다. 기봉은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인 ‘관서별곡’의 저자다.

정민 교수는 지금까지 50여권을 헤아리는 책을 썼다.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 공화국’ ‘다산의 재발견’ 등 700쪽에 달하는 책들도 있다. 호흡이 긴 책을 쓸 때는 종종 호텔에 짐겨하기도 한다. 학문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대중 강연은 하지 않는다. 그가 일관되게 전하는 주제는 18세기 지식인들과 그 시대상이다. 저술의 목적은 고전의 울림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반추하자는 취지다. ‘정민 교수의 한문학 홈페이지’(jungmin.hanyang.ac.kr)는 그래서 모

두에게 열려 있다.

“기본적으로 18세기나 지금이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출세를 위해 과거 보는 게 고시와 대기업 입사시험으로 대체됐을 뿐입니다. 고전을 읽음으로써 들뜬 삶의 중심축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혼란스런 정보가 넘쳐나죠. 당시 사회반응과 지식인들의 대응에 우리가 지금 찾고자하는 가치와 잃어버린 정서가 있어요.”

정 교수는 글을 만나게 쓴다. 부사나 형용사 등 기쁨기를 건어낸 생수 같은 간결한 문장을 쓴다. 타고난 글쟁이는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뼈를 깎는 공정을 거친 결과다. 그는 글 쓰는 것 보다 다듬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쓴다.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문장력과 수사만으로 글이 된다고 착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죠. 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생각입니다. 글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무늬와 결이 있어야 해요. 절제, 덜어내기도 중요하죠. 최근 시인 박목월 선생 탄생 100주년 행사를 개최했어요. 목월 선생 원고에는 특징이 있더군요. 초고를 쓴 뒤 고치는 과정에서 글을 덜어냈을 뿐 빼고 꾸민 내용은 없더군요.”

정 교수는 현재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야할 공부는 산더미 처럼 쌓여가고 써야할 책은 많은데, 문서를 들여다 봐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조만간 동다기에서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까지 이어지는 차의 역사를 조명하는 책을 펴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나오키마(直島)는 인구 20만 여 명의 외딴 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국내외에서 100만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관광지로 변신했다. 이름 아나미시마 지중(地中)미술관 때문이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미술관은 지하방공호를 연상케 하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과는 거리가 있지만 화려한 컬렉션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그중에서도 나오키마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현대미술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은 단연 인기다. 선적장 입구에 자리한 ‘빨간 호박’과

다. 하지만 ‘잘나가는’ 포피두센터에도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 지난 1977년 ‘미술관도 되고 창조공간도 되는 열린 문화예술센터’를 내건 당시 조르주 폼피두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건립됐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초현대식 건물컨셉으로 개관 초기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배선, 냉난방, 배관 등 기능적 설비를 모두 건물 바깥으로 빼낸 ‘홍물스런’ 외관과 콘텐츠 부족으로 하루 방문객이 100명에도 못 미치는 골육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1990년부터 차별화된 볼거리들을 선보이면서 파리의 랜드마크

문화전당엔 특별한 게 있다?!

미술관 인근에 설치된 ‘노란 호박’은 나오키마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작가 특유의 물방울 무늬가 감칠맛을 선사한다. 관광객들은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 앞에서 인상을 찍기 위해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나오키마를 찾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해 파리 현대미술관인 포피두센터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만 5000여 명이라는 소문대로 미술관 입구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기자의 시선을 끈 건 장 피에르 레이노의 ‘골든팟’이라는 ‘골든팟’(Golden Pot)이었다. 2층 야외테라스에 설치된 5m 높이의 화분 앞은 카메라를 꺼내든 관람객들로 붐볐다. 기념미술작가 장 피에르 레이노의 ‘골든팟’은 몇 년 전 국내 모 은행의 TV광고에 등장했던 ‘빅팟’의 연작으로 포피두센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마크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008년 기획한 장 피에르 레이노의 전시회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의 대표적인 ‘골든팟’은 포피두센터의 아이콘이 됐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머지 않아 광주 도심에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전당 내 도청별관 옆 공간(18m×14.5m)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공모 중이다. 문화전당의 부속인 랜드마크 기는 장 피에르 레이노의 ‘골든팟’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공평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징물을 선정해야 한다. 나오키마 미술관과 포피두센터에서 보듯 ‘명품 조형물’은 건물과 도시를 빛낸다. 문화전당의 아이콘이 절실한 이유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비엔날레재단, 오늘 광주폴리 시민공청회

3차 프로젝트 여론 수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7일 오후 2시 재단 거시기술에서 ‘광주폴리(Folly)’ 시민공청회-3차 프로젝트의 ‘항방’을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3차 광주폴리 추진에 앞서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차 광주폴리 방향 발제, 전문가 토론, 리셉션 순으로 진행된다. 제2기 광주폴리시민협의회 회장인

전득영 전남대 건축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명석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와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이 3차 광주폴리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앞서 광주폴리 2차 운영평가단으로 활동했던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포럼재단 상임이사가 ‘광주폴리 2차 운영평가’에 대해 보고한다. 문의 062-608-426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퇴직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일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고창에 집짓기** **농어촌주택**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완성된 그림 - 가로 65cm x 세로 51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투데이 경매

대인동 중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은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780㎡ 건물1993㎡
감정가24억7천
최저가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 424㎡ 건물 993㎡
감정가9억5천
최저가7억

운암동 대단지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면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판매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협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시범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